

# ‘마른 장마’ 물 부족 심각

## 주암댐·동복호 저수율 급격히 감소 식수·농업용수 비상 속 제한급수도

을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급격히 줄면서 광주·전남지역 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주암댐과 동복호의 저수율이 급격히 줄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역시 예년보다 크게 하락하는 등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에서는 흑산면 등 신안군 4개 면과 진도군 1개 면에서 격일제 또는 시간제 급수가 최근 시작됐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 누적 강수량은 811.2mm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누적 강수량 1천800mm에 비해 24.9%가 감소한 것이며, 평년 강수량인 1천 368mm에 비해서는 무려 40.7%가 줄어든 것이다.

전남에서는 서부권의 강수량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올 들어 24일 현재까지 목포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값인 691.3mm에 비해 21.6%가 감소한 542.5mm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여수지역은 804.3mm로 평년값인 895.8mm의 10.2%, 그리고 완도는 793.3mm로 역시 평년값인 923.8mm에 비해 14.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흑산도의 경우 올 들어 누적 강수량은 646.2mm로, 지난해 756.8mm보다 14.6%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저수율 61.9%에 비해서는 무려 절반 가량이나 감소한 것이다.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화순 동복호 저수율이 50% 대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 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역시 예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나주호의 경우 최근 저수율은 42%로, 예년의 평균 저수율 6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태다. 장성호 역시 예년의 72%에 비해 25% P가 감소한 47%의 저수율을 기록하는 등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3천 229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80%에 훨씬 못 미치는 66%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강우량이 적은 최근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말라붙은 식수원

전남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가 ‘마른 장마’로 말라붙었다. 주암호의 저수율은 24일 현재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2%에 불과.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화순=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 전남대 입학 5년만에 석사 땐다

### 12개 단과대 ‘학사+석사 연계과정’ 2학기부터 시행

전남대 학생들은 입학 후 5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전남대는 전국 국립대학 중 처음으로 2학기부터 학·석사 연계과정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연계해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수업연한을 단축, 조기에 석사학위를 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계과정 학생은 학부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학기별로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학부 졸업학점을 6학점 감축 받는 대신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 일정 수준(C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면 학사과정을 조기졸업하고 석사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또 석사과정 3학기까지

원지법은 4명의 영장을 22일 모두 기각했으며,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은 7명 중 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은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이랜드 매장에 대한 타격 투쟁을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23일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벌 우려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이랜드 매장 점거

### 13명 영장 재청구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 점거’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 14명 중 13명에 대해 3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25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 예정이라 고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을, 수

학부 재학 중에 이수한 6학점을 포함해 총 24학점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일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으며, 졸업 논문 심사에 합격하면 3학기에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전남대 17개 단과대학 중 12개 단과대학 61개 학과가 이 제도를 도입해 대학원 정원의 30% 가량을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 까지 해당 학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실시하며, 8월 6~10일 모집 학과별로 전형을 실시한 후 8월 20일 이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해당 학과에서 5학기를 이수해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가운데 총 평균평점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3.5점 이상이면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번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을 계기로 대학 내 면학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우수한 인재들의 대학원 진학을 제고를 통해 연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남도대·청암대 ‘정보공시제’ 시범대 선정

남도대학과 순천 청암대학이 ‘대학 정보공시제’ 시범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대학 및 전문대 10곳을 시범 대학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학은 경북대와 한국교원대, 건국대, 경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남도대학,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대학, 순천 청암대학이다.

시범 운영대학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대학 정보 공시 항목은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경제단체(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 대학 측의 의견을 설문 또는 설문 면접 조사 등으로 수렴한 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례법상 정보공개 항목은 대학입학 전형계획, 입학정원 등 모집요강,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직 학

교수 1인당 학장학금, 졸업률, 취업률, 전체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교수 1인당 SCI 논문 발표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들이 정보 공개를 이행치 않거나 하위 공시할 경우 시정·변경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시정 명령도 어길 때는 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 처벌과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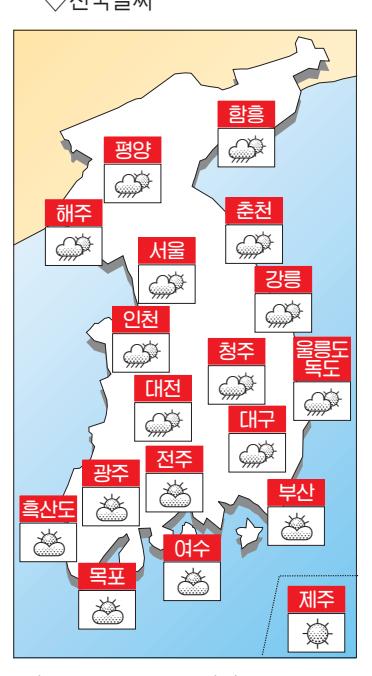
## 잔뜩 찌푸린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구름이 많이 끼겠다.

주	구름 많음	24~32°C
목	구름 많음	24~30°C
여	구름 많음	23~27°C
금	구름 많음	23~31°C
토	구름 많음	24~33°C
일	구름 많음	23~31°C
월	구름 많음	24~31°C
화	구름 많음	23~32°C
수	구름 많음	23~31°C
목	구름 많음	23~31°C
금	구름 많음	24~31°C
토	구름 많음	23~32°C
일	구름 많음	21~27°C

7월 25일  
(음 6월 12일)

◇전국날씨



## 인터넷은 범죄 교습소?

인터넷이 범죄수법을 알려주는 ‘교습소’가 되고 있다.

독포와 영암지역 고등학생인 김모(16)군 등 5명은 24일 새벽 1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K 원룸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50cc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 등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오토바이 열쇠박스(Key-box) 분리 및 시동거는 법’을 검색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엠파스·다음·야후 등 유명 포털사이트 4곳엔 24일 현재 ‘키 없이 시동거는 법’이란 정보가 600여 건 게시돼 있다.

17살이라고 밝힌 아이디 wjgdmXXX가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

시판에 ‘오토바이 열쇠

없이 시동 거는 법’이

란 제목으로 올린 질문

엔 ‘열쇠박스와 차량

사이의 ○○○을 빼다

음 발을 이용해 시동

레버를 굽리면 된다’는

댓글이 붙었다.

### ‘키 없이 시동거는 법’ 보고

### 고교생 5명 오토바이 훔쳐

### 불법게시물 대책 마련 시급

‘오토바이 열쇠박스 교체하는 법’ ‘열쇠 없이 자동차 문열고 시동 거는 법’ 등 구체적인 질문에도 ‘뾰족한 도구를 열쇠 구멍에 넣어 둘리면서…’ 등 자세한 답글과 교체시 필요한 연장이나 부품 가격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었다.

포털 측은 그러나 범죄 수법에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자체 검열을 소홀히 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네이션들의 의식 부족 등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이 성매매나 자살모의 등에 이어 강력범죄에 대한 수법을 알려주는 칭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포털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제1회 경찰청 공인자격 인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실무**

40년 전통의 “경찰”은 “국” 할 수 있다. 학원도 모집합니다.

**무등고시학원**

434-7858

**www.kwipolice.com** | 공무원합격 핵심 1위

2007년 국가직·재량직 시험 수험은 힘들어지는 데만 힘들어집니다.

**7급 공무원 개강 8월 1일**

1. 9급 공무원 학습班  
2. 7급 공무원 학습班  
3. 6급 공무원 학습班  
4. 5급 공무원 학습班  
5. 4급 공무원 학습班  
6. 3급 공무원 학습班  
7. 2급 공무원 학습班  
8. 1급 공무원 학습班

=전국 표창교수진은 만족할 수 있다=

**한빛공무원학원**

전화번호: 02-234-0234